

動 向 分 析

要 約

▷ 주요 목차 ◁

- I. 勞 動 市 場
- II. 勞 使 關 係

I. 勞 動 市 場

○ 雇 傭

1992년
 경제성장률 4.7%
 제조업 성장률 4.8%
 소비자물가상승률 6.2%

1992년 경제성장률은 고정투자 감소와 민간소비 둔화로 전년의 8.4%보다 크게 하락한 4.7%를 시현하였다.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4.8%로서 특히 전산업 평균과 비슷한 성장률을 시현하였다. 특히 섬유, 의복, 신발 등 경공업부문은 내수둔화와 국제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1.3%로서 제조업 성장둔화를 주도하였다. 한편 1992년중 도매물가는 2.2%, 소비자물가는 6.2% 상승하여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안정되었다. 이러한 성장부진과 물가안정 추세는 1993년도 고용 및 노사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
1992년
 경제활동인구 2.0% 증가
 취업자 1.9% 증가
 실업률 2.4%

1992년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2.0% 증가하고 취업자는 1.9% 증가하여 예년보다 1% 정도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시현하였다. 그러나 실업률은 2.4%로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비농부문은 취업자증가율(2.7%)이 경제활동인구증가율(2.8%)보다 낮아 비농부문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6.9%

증가한 43만 7천명으로 감속성장 추세에 따라 도시부문의 노동력부족현상이 완화되고 일부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.

1992년의 경제활동인구는 그 구성상 여성화·고령화 그리고 고학력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. 20~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1.3% 증가에 그쳤는데 주로 이 연령층 여성의 노동시장참가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. 반면 25~54세의 기간노동력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에 비해 1.5% 증가에 머물러 베이비붐세대 이후의 인구감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. 이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증가는 오히려 남성이 주도하고 있어 주부 여성의 노동시장참가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. 한편 5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7.3% 증가하여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.

1992년 산업대분류
제조업 3.4% 감소
건설업 7.1% 증가
서비스업 5.5% 증가

1992년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전년의 증가율 감소추세가 더욱 심화되어 전년대비 3.4% 감소하였다. 이는 특히 섬유,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고용감소 때문이다. 한편 건설업은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효과로 고용증가 추세는 안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산업 평균증가율보다 높은 전년대비 7.1%의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다. 서비스업은 내수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전년대비 5.5% 증가하여 전년의 5.3% 증가보다 약간 높아졌다. 따라서 1992년의 전반적인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동향은 노동시장의 인력흐름이 제조업에서 서비스부문으로 뚜렷이 나타나 제조업 취업자 구성비가 25.2%로서 1989년 이후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.

1992년 직종대분류
생산직 2.4% 감소
사무직 10.2% 증가
전문기술직 10.9% 증가

1992년중 직종대분류 취업자 동향을 보면 제조업 성장률 둔화에 따른 취업자 감소를 반영하여 생산직의 경우 전년보다 2.4% 감소하였다. 한편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제조업의 자동화 추세로 사무직과 전문기술직이 각각 10.2%, 10.9% 증가하여 취업자 직종구조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.

1992년 비농부문
고용형태
상사고 2.9% 증가
일고 3.5% 감소

1992년중 비농부문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상사고는 전년동기대비 2.9% 증가한 반면, 일고는 3.5%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고용안정률이 1990년 2/4분기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. 한편 일고의 감소는 건설업 취업자 증가율 둔화와 농업취업자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. 한편 제조업에서는 상사고가 5.3% 감소하여 1986년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.

1992년 직업안정
구인 10.1% 감소
구직 14.2% 증가
구인배율 1.92

1992년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구인자수는 15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10.1% 감소한 반면, 구직자수는 7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14.2% 증가하였다. 따라서 구인배율은 1.92로 나타나 전년도의 2.44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현안이 인력부족에서 고용불안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.

○ 賃 金

1992년
임금총액 15.2% 상승
정액급여 14.3% 상승
초과급여 10.6% 상승
특별급여 20.5% 상승
임금총액 869천원

1992년중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대비 15.2% 상승한 86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. 이는 작년의 상승률 17.5%보다 2.3%포인트 하락한 것인데 연초의 일반적 예상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. 특히 특별급여는 20.5%의 높은 상승률을 시현하였는데 1/4분기의 34.9%와 4/4분기의 33.0%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. 이는 성과배분등의 지급이 이 시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.

한편 초과급여는 전년대비 10.6% 증가에 머물러 전년의 11.5% 상승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. 이는 고임금 추세가 계속되면서 사용자는 초과근로를 되도록 억제하고 있고 생산적 근로자 역시 소득상승효과로 초과근로를 기피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.

한편 1992년 12월말 현재 타결임금인상률은 6.5%를 기록하고 있어 실제임금상승률과의 격차가 8.7%로서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. 이는 교섭시기와 통계작성기간의 시차 및 통계대상의 차이 자연호봉상승, 성과배분, 그리고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의한 임금부상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. 특히 1992년 임금교섭 이전의 통계인 1/4분기 상승률 21.0%를 제

외하면 1992년에 이루어진 임금상승률은 13%대 수준에 머물러 임금의 안정추세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.

1992년 산업별임금
제조업 15.7% 상승
전기·가스·수도업
8.2% 상승

1992년중 산업대분류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제조업은 전년의 16.9%에서 1.2%포인트 하락한 15.7%를 시현하여 증가추세가 계속 둔화되었다. 건설업 역시 1991년 18.7% 수준에서 3.4%포인트 낮아진 15.3%를 시현하였는데 이는 1991년 3/4분기 이후 건설경기 진정대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나 인력부족 현상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. 그리고 대부분 공공기관 사업체인 전기·가스·수도업의 임금상승률이 8.2%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총액임금제 정책의 효과가 이 부문에서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.

1992년 직종별임금
생산직 15.3% 상승
사무직 13.6% 상승

1992년중 직종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생산직이 15.3%, 사무직이 13.6% 상승하여 생산직/사무직 임금비율은 74.7%로서 전년의 상대임금비율 72.7%에 비해 직종간 격차의 완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다.

1992년 규모별임금
사업체규모간
임금격차 축소

1992년중 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10~29인 규모의 영세기업은 16.8%인 반면,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14.2%로 나타나 1987년 이후 계속된 영세기업과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확대 추세가 역전되었다. 이는 대기업 위주의 임금안정정책의 효과가 매우 컸음을 시사해 준다.

○ 勤勞時間

1992년 월근로시간
전산업 206.5시간
정상근로 0.4% 감소
초과근로 3.0% 감소

1992년중 월평균 근로시간은 206.5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1.7시간 감소하여 1989년 이후 근로시간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. 주당 근로시간은 전산업이 47.5시간, 제조업은 48.7시간을 기록하고 있다. 근로시간의 단축은 대부분 초과근로시간의 3.0%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. 이는 1990년 10월 이후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, 또한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 기피 및 작년의 경비부진도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. 한편 1991년 10월

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근로시간단축은 향후 계속될 전망이나 감축 속도는 크게 낮아질 것이다.

II. 勞使關係

○ 賃金交渉

1993년 4월 1일
노사합의 임금인상률
4.7~8.9%

1993년 4월 1일 노사대표회담에서 합의된 1993년 임금인상률은 범위율로서 4.7~8.9%이다. 더불어 합의내용은 경제주체의 고통분담 몫으로서 정부는 물가안정, 금융 및 세제개혁, 고용보험제 실시, 사용자는 정보공유, 가격전가 금지, 해고 자제 그리고 근로자는 생산성향상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.

○ 勞使紛糾

1993년 3월말 현재
분규건수 17건
쟁의발생건수 56.6%
감소

1993년 3월말 현재 노사분규는 총 17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30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. 그리고 분규의 선행지표인 쟁의발생신고는 3월말 현재 66건으로 전년동기의 152건에 비해 56.6% 감소하였다. 이는 경기부진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의 교섭력이 약화되었고 또한 그동안의 경험축적으로 인해 안정적 노사관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.

1993년 3월말 현재의 노사분규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체불임금 41.2%, 임금인상 11.8%, 단체협약과 기타 원인이 각 47.0%의 순으로 나타났다. 전년동기에 비해 체불임금관련 분규와 단체협약관련 분규가 급증한 것이 특징적이라 하겠다. 체불임금 관련 분규의 급증 원인으로서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제여건의 악화로 광업과 중소기업의 휴·폐업 및 도산이 많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단체협약관련 및 기타 분규는 3월말 현재 8건인데 대부분이 해고근로자 복직과 수당추가지급을 둘러싼 분규이다.